

난민 지원·자립 역량 강화 업무 협약 천주교 서울대교구, 2년간 1억원 지원 예정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제주교구(교구장 문창우 주교)가 제주 난민 신청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14일 제주교구와 제주 지역 난민 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대교구는 올해부터 2년간 매년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나오미센터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난민 신청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긴급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 나오미센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인건비 일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나오미센터가 향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자 네트워크 구축,



자문·후원자 모집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나오미센터는 제주 지역 이주노동자와 난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 지원, 교육, 통역, 쉼터 운영 등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예멘 난민 입국 때에는 거처 마련과 긴급 구호, 의료 지원 등에 나섰다.

정순택 대주교는 “이번 협약이 제주 지역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돋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전통 돌담·돌문화의 가치를 담다” 돌문화공원 보고서… 유네스코 등재에 활용

제주의 전통 돌담과 돌문화 경관의 가치를 분석하고 정리한 두 권의 학술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가 펴낸 ‘제주의 울담과 올레’와 ‘제주돌문화지도(조천읍·구좌읍 편)’이다.

21일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제주의 울담과 올레’는 ‘제주 돌문화 연구총서’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중산간 마을과 해안마을을 중 울담과 올레가 잘 보전된 24개 가을을 표본 조사해 돌담 쌓는 방식과 구조적 특성, 지역별 분포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질·건축·돌담 전문가 3명이 공동으로 돌담을 구성하는 암석의 지질 특성과 생활문화 간 상관관계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주돌문화지도(조천읍·구좌읍 편)’는 2024년 ‘구제주시편’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기록이다. 조천과



구좌 지역에 흩어진 밭담, 산담, 성담, 불터, 제단 같은 돌문화 유적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해설로 엮었다. 돌문화 유산을 개별 유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주 사람들의 생활·신앙·방어·공동체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경관’으로 바라본다.

보고서는 돌문화공원이 추진 중인 종장기 연구 사업의 성과로 제주 돌담과 돌문화를 주제별·권역별로 체계화해 ‘제주 돌담 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감귤농협 위미지점 부녀회 성금 기탁

제주감귤농협 위미지점 부녀회(회장 김춘민)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돋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중문동 마을 순회 통장회의 개최

서귀포시 중문동(동장 임정순)은 지난 19일 하원마을회관에서 통장·사무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 순회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 등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마을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김영주 원장 이웃사랑 성금 기부

김영주 프라임국제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김 원장은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 이 실천이 아이들 마음속에 따뜻한 기준 하나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6기 효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서귀포시 효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성민·강영민)는 지난 20일 효돈동주민센터에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효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1월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강영민 위원이 선출됐다.



제이비즈 소아신장병 환우 돋기 성금 전달

(주)제이비즈(대표이사 현승진)와 제주글로벌문화콘텐츠예술인협회는 ‘제8회 소아신장병 환우 돋기 자선 행사’를 통해 모은 성금 100만원을 최근 제주대학교병원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구좌119센터 경로당 심뇌관질환 예방교육

제주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센터장 강희동)는 21일 심뇌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심뇌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하귀농협 우박 피해 조합원 자재 지원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은 지난 20일 하귀농협복지센터에서 지난해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조합원 86명을 대상으로 총 2400만원 상당의 복합비료를 지원했다.



이도1동 불법 광고물 모니터링 강화

제주시 이도1동(동장 부성하)은 최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부성하 동장은 “광고물 규정을 상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군실 씨 적십자사 신사옥 이전 성금

이군실 씨는 21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를 방문해 신사옥 이전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한라게시판

화 촉

신랑 고문철
모 신순덕의 삼남
신부 강유경
부 강두식(세화초 교장)
모 김여진(백록초 교사)의 장녀

■ 일시 : 2026년 1월 25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제주 노동항 웨딩컨벤션제주도(220)
당일 파로연(신랑 신부)
일시 2026년 1월 25일(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장소 제주 노동항 컨벤션
신랑측 전일 파로연
일시 2026년 1월 24일(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장소 표선 흑돼지고기(서귀포시 표선읍 민속한인 579)

부고

▶ 조은덕(한림로타리클럽 제30대 회장, 조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장)씨 별세, 김민숙 씨 남편, 조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예은 씨 부친상, 서청우(제주양돈농협)씨 빙부상
▶ 일포=1월 21일(수) 부민장례식장 2번소 ▶ 발인 일시=1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지=양지공원 ▶ 연락처=한림로타리클럽회장 고창문(010-9016-4090), 총무 서경훈(010-9865-1153)

알립

제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길라잡이 발간 지도교사 업무 경감 위한 도교육청 지침서

제주지역 학교 오케스트라 지도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지침서를 발간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길라잡이’를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기존 이론 중심의 자료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실무 서식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별 운영 계획서 예시, 단원 모집 가정통신문과 출석부 양식, 강사 채용 공고문 및 선정위 원회 회의록, 악기 수리 계약·불용 처리 절차, 등굣길 음악회·제주국제관악제 등 각종 연주회 운영 계획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수정 편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 책자가 아닌 한글 파일 형태로 지침서를 제작했다. 또 한글 프로그램의 메모 기능을 활용해 선배 교사들의 운영 방법과 주의 사항을 초임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길라잡이 보급으로 교사들이 행정 업무와 민원, 무대준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지도와 음악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악기·강사 관리도 체계적으로 되면서 예산 집행 투명성과 공연 운영의 안정성·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텁재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침서를 지속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다.